

2027학년도 3모 대비 렐트리 스페셜 모의고사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⑤	2	⑤	3	④	4	②	5	⑤
6	④	7	②	8	⑤	9	④	10	②
11	⑤	12	③	13	②	14	④	15	③
16	②	17	③	18	③	19	③	20	①
21	④	22	③	23	②	24	⑤	25	②
26	①	27	②	28	②	29	③	30	④
31	③	32	④	33	③	34	⑤	35	

해설

[1~3] 독서문 (2023 4월 모의고사)

[1 ~ 3] <출전> 김원준, 「격치를 통한 율곡 독서방법론의 확장」

선정 이유: 교육청 모의고사에 수록되어 있는 독서문들 중에서 가장 평가원스럽고 또 소재도 괜찮아서 골랐습니다.

1. [출제 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다독은 책과 책을 연계하여 서로의 의미를 이해하고 책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하였으므로, 다독이 책의 깊이를 측량하기 위한 독사에서 벗어난 독서법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책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 흠어지면 올바른 독서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율곡은 자신이 강조하는 '독사에서 벗어난 그릇된 독서법을 독서 병통이라 부르며, 그 유형과 해결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문단에서 '율곡 이이는 책 속에 담긴 이치를 밝혀 이를 실천하는 독서를 강조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독서에 온 마음을 다한다고 해도 늘 이치에 다다를 수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 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㉔는 유학 경진인 중용을 읽으면서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 많이 배웠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율곡의 입장에서는 성현의 뜻을 이해하고 앓을 확장했음에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발생한 '책과 자신이 유리된 병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율곡의 입장에서 ㉔를 책에 담긴 성현의 뜻에 대한 선입관으로 발생한 병통으로 보고, ㉔에 해당하겠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㉔는 중용을 통해 우주의 미래를 보는 법과 같은 초월적 지식을 배울 수 있다고 여기고 읽다 정작 책에 담긴 지식은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율곡의 입장에서 책에 초월적 지식이 있다고 여기고 이를 얻으려고 하다가 발생한 '기이한 것에 현혹되는 병통'에 해당하겠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㉔는 깊은 생각 없이 글귀 자체의 뜻만 밝히며 읽어 막상 글에 숨겨진 이치는 파악하지 못한 경우로, 율곡의 입장에서는 '그저 책만 읽는 병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글귀의 옳고 그름을 깊이 따지며 읽는 독서법을 조인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③ ㉔는 책이 조금만 어려워도 이치에 도달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온 마음을 다해 읽으려고 하지 않고 독서를 포기한 경우로, 율곡의 입장에서 '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병통'에 해당한다.

다. 그러므로 책을 한 단락씩 세심하게 읽어 나가는 독서법을 조인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④ ㉔는 욕심이 지나친 다독으로 마음만 급하여 어떤 책도 음미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율곡의 입장에서는 '마음만 앞서는 병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책 한 권의 의미를 모두 알게 된 후에 다른 책을 읽는 독서법을 조인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3. [출제 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보기>에서는 책을 읽을수록 수많은 공금증과 어려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혜의 문에 도달하려는 신호이기 때문에 책 읽기를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A]에서는 독서 중 의문이 많아진다고 독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답 ④

[4~7] 주제 통합 (2025년 7월 모의고사)

□ 출전 : (가) 김비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나) 김성호 외, 「법과 정의의 사이 : 테리다에 있어서 헌법의 정당성」

선정 이유: 과학계 어렵지도 않고 또 과학계 쉽지도 않은 교육청 모고 지문을 찾아보면 도중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정오관정 원리가 쉬워 3모 수준의 난이도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해 선정.

4. [출제 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사상인 로고스 중심주의가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경향을 언급하고,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한 테리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가)는 로고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렌트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로고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서구 전통 철학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테리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지만, 두 주장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로고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개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아렌트의 주장을 설명하고 의미를 밝히고 있지만, 한계를 밝히지는 않았다. (나)는 로고스라는 개념을 비판한 테리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5.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정치적 자유'를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 안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2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2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보았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2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다원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며, '다원성으로 인해 인

간은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4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았다.

6.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테리다는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라고 하였고, 4문단에 따르면,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올은 테리다의 해체 철학은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함으로써 이질적인 것에 대해 개방된 사회를 추구하는 철학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대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테리다의 주장은 맞으나, 테리다의 철학 허무주의가 아님을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불안정하다'고 보았지만,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으므로, 대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다'고 하였으므로, 대답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 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고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4문단에 따르면,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헌법은 제한 권력인 국가가 설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며, '제헌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㉔이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참여가 중요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제한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국가 설립의 기반이 부재함을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하였다. 따라서 ㉔이 근원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실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라고 주장하였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맹목적인 믿음의 해체를 통해 법에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개인적 욕망에 따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질서 확립의 시급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비판'하며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된다'.

8.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제한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두고 경계를 설정'한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동일성을 중시한 서구 진보 철학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C 지역의 주민 의회가 발안한 법률에 대해 테리다가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념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 가는 과정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보기>의 A 국에서의 혁명으로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바탕으로 B 연방국이 설립되었으므로, 아렌트는 이것에 대해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것이다.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아렌트는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4문단에 따르면,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라고 보았다. <보기>의 B 연방국의 헌법은 각 지역 대표들의 토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주민 자치 및 주민 의회 제도를 통해 공적 공간을 형성했으므로, 아렌트는 이것에 대해 국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볼 것이다.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보기>의 B 연방국이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아렌트는 이것에 대해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테리다는 '제한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보기>의 이념자들은 국가의 경계 밖에 있는 타자로서, 국가의 틀로 인해 B 연방국의 C 지역 주민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으므로, 테리다는 이것에 대해 국가의 틀로 인해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것이라 볼 것이다.

9. [출제 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답보하다'는 '말아서 보충하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분별하다'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②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③ '향유하다'는 '누

리어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⑤ '간주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10~13] 미학(2012학년도 리트)

선정 이유: 리트 지문 중에서 과하게 어렵지도 않으며 3모 정도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추론 능력과 구조적인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줄 지문이라 생각하여 선정(이때 리트도 평가원이 씀)

10. [출제 의도] 핵심 정보 파악

멜로드라마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통속적 이야기로 시작해 연극에서 영화로 전환되기도 통속성과 스펙터클을 만들어내기에 적절했다는 점을 들어 통속성이 멜로드라마의 주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지속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초기 멜로드라마에서도 사회적모순을 극복하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 그 정의였고, 그 뒤 많은 변화 양상 속에도 '사회적 모순 극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점점 제도화된 가족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사회적 모순을 강조하는 모습 등에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까지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다. ④ 초기에도 그랬고, '천국이 허락한 모든 것'에서도 거듭된 '우연' 끝에 정원사와 재회하는 모습 등에서 작위적인 서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1. [출제 의도] 퍼뜨린 표현 탐구하기

이 지문은 약자의 슬픔을 통한 파토스를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멜로드라마의 변화 양상이라고만 주장하였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그라 노모두' 기본적으로는 영화적이다. 영화의 정의를 보면 음악을 통해 파악된 정서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이라 나와있기에 적절하다. ② '기'에서는 파토스가 제대로 발휘되어 여성인물에게 관객들이 공감을 하지만 '나'은 영화의 내용이 허구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기에 관객들이 몰입하는 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③ '기'에서는 파토스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목표라면 '나'은 사회적 모순 강조등이 목표이다. ④ 결국 멜로드라마 주인공이 약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2. [출제 의도] 개념의 구체적 적용

가정주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에서 가부장제라는 현실에 종속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춤바람이 난 것이 현실에 대한 반발이라고 선지에 나와있으니 이를 현실 극복의 태도라 보는 것은 타당하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현실에 종속되는 것도 넘어서려는 태도도 없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② 현실에 종속되지도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④ 현실에 종속되는 건 맞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 ⑤ 마찬가지로 현실에 종속되는 건 맞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

13. [출제 의도] 어휘 파악 (자작)

지문에 체크한 a의 의미는 '의외성'이라는 추상적인 요소를 수단이나 근거로 삼는다는 뜻이다. 정답 ②

[14~17] 과학 기술(2009학년도 리트)

선정 이유: 리트 과학 기술 지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무난한 지문이기도 하며 평가원 특유의 핵심 잡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리트 지문이라 생각하여 선정 (그리고 이때 리트 평가원이 만들)

14. [출제 의도] 글의 정보 파악하기

대륙 충돌 이후 대륙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도 높은 압력을 받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따라서 대륙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도 에클로자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현무암질 화성암에 해당하는 선지이다. ② 산동반도와 홍성 모두 충돌대에 있기에 적절하다. ③ 히말라야 조산대 형성 이전에 섭입된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었기에 적절하다. ⑤ 대륙이 충돌하기 위해선 두 대륙이 떨어져있어야 한다. 에클로자이트의 존재를 통해 우린 대륙 충돌 전 두 대륙들 사이에 해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5. [출제 의도] 추론

한반도 남부 지역의 일부가 북부 지역 밑으로 섭입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오대산이 동쪽에 위치하기에 충돌은 한반도 동쪽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② 곤드나와 초대륙에 대한 설명이기에 적절하다. ④ 에클로자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 한반도의 남북부가 한 대륙이 아니었으며 그 사이 바다가 있음을 함축한다. ⑤ 충돌대 동쪽 부분인 산동반도 지역은 인장력에 의해 높은 산이 낮아졌다. 홍성 오대산 충돌대를 따라 존재했을 높은 산맥 또한 비슷하게 낮아졌다고 유추 가능하다.

16.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안데스 산맥지역은 수렴경계이기 때문에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된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유지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지 않기에 에클로자이트도 생성되지 않는다. ③ 히말라야 조산대에는 해양지각이 나타나기에 적절하다. ④ 수렴 경계인 알프스 조산대에서는 일부 맨틀도 함께 상승하기에 적절하다. ⑤ 2문단을 보면 두 대륙의 충돌부가 강력히 압축되어 습곡이 나타났을 것이다.

17. [출제 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자작)

3문단에 따르면, 지하 120km 깊이까지 끌려 들어간 대륙 지각은 주변 맨틀보다 밀도가 낮아 부력(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갖게 된다. 반면 해양 지각은 고밀도 광물 때문에 계속 가라앉으려 한다. 따라서 지표 노출의 근거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 차이에 의한 힘의 불균형이다. (가)

4문단에서 중국의 다비-수루 벨트 충돌 시 "남중국 판의 앞부분이 북중국 판 밑으로 섭입되었다"고 명시되었다. 홍성 지역의 에클로자이트가 이 벨트의 연장선이라면, 섭입된 판은 남중국 판이다. (나)

3문단 후반부에서 대륙 지각은 위로 가려 하고 해양 지각은 아래로 가려 하므로, 결국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과 끊어져(분리되어)" 지표로 빠르게 상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정답 ③

[18~21] 교전소설(2019학년도 6모)

선정 이유: 옛기술 중에서 난이도가 무난하며 3월 모의 고사 수준에서 물어보기에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선정

18.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짚고고집'은 '참고고집'보다 앞서 마을 사람들을 아는 척하며 '참고고집'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건넌으로써 '참고고집'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서술자는 '참고고집'의 입장에서 '날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 참고고집일지도 모르는지라'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참고고집'의

정답 및 해설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A]에는 두 용고집이 송사를 가는 중에 보인 행동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참용고집'과 '질용고집'이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해 송사를 벌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② [A]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누가 알아보리오. 누 아들 인지 알 수가 없다.'와 같은 반응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이 '질용고집'이 승소하는 송사의 결과와 관련한 행인들 사이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④ [A]에서 '참용고집'과 '질용고집'은 서로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고 있다. ⑤ [A]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모나 외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구결의 의미 파악

㉔은 '참용고집'이 집 근처에 왔음을 '질용고집'이 능히 알아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후 '질용고집'은 '참용고집'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참용고집'을 개과시키기 위해 데려올 것을 사환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㉔을 '참용고집'의 거동을 수 상히 여겨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㉔에서 '마누라'는 송사에서 이긴 '질용고집'을 '참용고집'으로 믿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고 있다. ② ㉔에서 '참용고집'은 '질용고집'을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있다. ④ ㉔에서 '참용고집'이 마을 뒷산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㉔에서 '참용고집'은 '갈 마음 전혀 없다.'는 말로 함께 가자는 사환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의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참용고집'이 아니라 '질용고집'이 한 말이다. 또한 '참용고집'이 스스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잘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참용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막대'하였다는 말을 통해 '질용고집'은 '참용고집'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참용고집'이 평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며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전곡을 흩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참용고집'의 재산으로 '질용고집'이 전행을 베푸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참용고집'과 같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질용고집'을 통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질용고집'이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들'에게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흩어' 주는 모습에서 '참용고집'이 쌓아 둔 재물이 많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전걸식'은 '참용고집'이 겪은 고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참용고집'의 고달픈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B]와 <보기>에서 '참용고집'으로 하여금 개과천신할 것을 요청하는 발화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발화가 '참용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기>에서는 '참용고집'이 먼저 '도사'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있으므로, 개과천신을 요청하는 발화가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참용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에는 '나의 어진 용심', <보기>에는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상황이 언급되었다. [B]의

'어진 용심'은 용서하는 '질용고집'이 지닌 것이고, <보기>의 '정상'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참용고집'의 처지와 관련된 것이다. ② [B]의 '질용고집'은 '후생에게' '정계한 사례'로서 '참용고집'을 살려 두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됨을 밝히고 있고, <보기>의 도사는 '참용고집'가족의 가여운 상황을 고려하여 '참용고집'을 용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B]와 <보기>에는 각각 '참용고집'이 '부모 박대'하고, '늙은 모친 냉등방에 구박'하는 비인륜적 행위가 정계의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⑤ [B]의 '질용고집'이 '허수아비 찰벼질뭇물'으로 변하는 것이나 <보기>의 도승이 '홀연 간데없어지는 것은 [B]와 <보기> 모두 도술과 같은 신기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22~27] 복합(2010학년도 수능)

선정 이유: 솔직한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건 맞으나 종종 현대시 복합을 매우 어렵게 내기 때문에 대비하라고 선정

22. 비관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는 춤을 묘사한 시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이나 서서히 움직이는 동작, 멈춘 동작까지 모두 묘사되어 있다. 특히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 보선이여'에서는 오이씨와 같은 비선을 신은 발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춤사위를 표현하고 있다.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뻗는 손'에서 손의 동적인 움직임의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빠꾸기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이다. 2연에서 '실체의 뻐꾸새가 / 한 울음을 토해 내면 /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부분은 빠꾸기 울음 소리가 봉우리를 넘고 넘어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는 민양정 주변의 모습을 여러 비유법을 사용하여, 마치 '용이 일어서는 듯', '학이 두 날개를 벌리는 듯', '하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등과 같이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세 작품에서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가), (나), (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에만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나)와 (다)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23. [출제의도] 추론적 사고

(가)의 '흐르는 빛'은 (여인의 얼굴이) '정작으로 고와서' 화자의 마음을 서럽게 하는 빛이다. 그 고운 얼굴빛은 승무를 처음 발견한 화자가 그 자리에 서서 춤을 끝까지 보도록 붙잡아 두는 힘이기도 하다. ②에서는 '흐르는 빛'을 여인의 얼굴에서 화자가 발견하는 빛으로 보지 않고, 여러 빛들에 의한 조명 효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풀이] 여승이 춤을 추는 배경이 달이 지는 '밤'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다른 정경들이 어둠 속에 묻히고 무녀(舞女)인 여승이 부각된다. ④ (가)에서 '하늘'은 지상의 세계와 대비적인 의미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지상은 인간이 번뇌를 느끼는 곳이며, 세속사에 치진 인간은 '하늘', 그리고 하늘의 '별빛'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별'은 인간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게 하는 해탈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여승이 까만 농동자를 들어 '한 개의 별빛'을 향한다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가고자 하는 여승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⑤ 6연에서 '농동자 살포시 들어 ~ 별빛에 모두오고'라는 구절이 7연의 '눈물', '부녀는 별빛이라'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별빛'이 '부녀의 눈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이어준다고 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추론적 사고

(가)에서 여승의 춤사위는 느리게 출발해서 점차 빨라지면서 다시 고요해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화자는 여인에게서 세상사의 번뇌와 설움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귀뜨리도 지세우는 삼정'에 나비와 같은 춤이 이어진다고 하여 시상을 종결한 것은 여승의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설움'이 지리산에 숨어사는 한 마리 뻐꾸새의 울음을 깨달았고, 그 울음이 지리산 전체를 울게 만들었으며, 그 울음에서 발원(發源)한 한줄기 강이 멀리 남해 바다로 흘러들어 무수한 섬을 생기게 했음을 깨닫는다. 또한 그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서 지리산의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마지막 연의 '세석의 철쭉꽃밭'은 이승의 맨 마지막 빛깔로서 앞 연에서 서술된 설움을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④ (가)의 설움은 여승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의 설움은 외부적 대상인 '뻐꾸새'에서 비롯되고 있다

25. 추론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2연에서 지리산 아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체의 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가 그 소리를 받아 넘기고 그 소리가 뒷산 봉우리를 넘어 울려 퍼진다. 그리고 또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긴다. 이는 한 마리의 뻐꾸새 울음이 차츰 다른 뻐꾸새로 이어지는, 즉 공동체의 공감으로 확산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실체의 뻐꾸새'는 '여러 마리의 뻐꾸새'와 다르지 않은 동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화자가 울음의 주인공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석' '석 삼년' 즉 이십 칠 년의 봄을 더 넘겨서이고, '길이 덜 뜬 설움에 맛이 들고' 나서였음을 1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4연의 첫 행에 '지리산 하', '지리산 중', '삼진강'이라는 시적 공간을 배열하여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비교)

[A]는 지리산의 봉우리가 한 마리 뻐꾸새의 울음소리를 받아넘긴다고 하여 자연물을 의인화한 표현이 쓰였으나, 직유법은 쓰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B]에서는 민양정 앞의 시냇물을 '쌍둥'(<쌍둥이 뒤통스 듯>)과 '비단'(<긴 깃을 펼쳤는 듯>에, 물가에 펼쳐진 모래밭은 '눈'(<눈같이 퍼졌거든>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직유법이 쓰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B]에서 4음보의 정형적 음보율이 느껴진다.

27. [출제의도]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다)를 감상하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민양정'은 작가가 천지만물의 이치를 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라 하였다. 화자는 민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하고 했다. ⑤의 '늙은 용'은 제철봉의 형세를 표현한 것인데, 선장에서 막 깨어난 '늙은 용'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한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늙은 용이 선장에서 막 깨어났다는 것은 이상을 펼치기에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펼치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무변대야'는 '끝없이 넓은 들'로 그런 곳에서 무슨 '짐작'을 한다는 것은 작가의 이상이 높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③ '두 날개를 벌리는 듯하다'는 표현은 비상(飛上)하려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추월산의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서 있다는 것에서, 높고 낮은 다양한 형세의 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28~30] 현대소설(2009학년도 리트)

선정 이유: 이때 리트를 평가원이 만들기도 하였고 수능과 교육청 모고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생각하나 지문 자체가 매우 좋고 또 등장인물에 집중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연습할 수 있도록 선정.

2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②
 ‘문자’는 가난한 현실에 주눅 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웃들에게도 친절하지 그치지 않다. 그녀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한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문자’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한 진술이 ②번이다. 소극적이고 유약한 듯하지만 사랑으로 강인해진 내면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①, ③, ④는 ‘문자’와 거리가 먼 진술이므로 버리는 데 문제가 없는 반면 ⑤번이 다소 오답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자의 희생적인 사랑이 ‘비참한 현실 극복의 의지’로 자기보다는 외유내강으로 가는 게 보다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③
해설>
 ‘문자’의 얼굴을 붉게 상기시키고 방 안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이는 건 한수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수를 비유한 구절을 찾으면 된다. 그것이 ㉔의 ‘등불’이다. 바로 이 등불이 문자에게 희망의 존재인 한수를 비유한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㉑의 ‘마패’는 숨겨 놓은 귀한 보물을, ㉒은 굴욕을, ㉓의 ‘양초’는 소망을, ㉔의 ‘항기’는 문자의 행복한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30.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④
해설>
 ①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과거의 시간이 등장하긴 하지만 예상적인 회고 장면은 없다.
 ③‘눈’은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다.
 ④‘한수의 마음은 무디고 이기적이어서’ 같은 표현에서 ‘문자’의 사랑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④번이 적절한 감상으로 정답이다.
 ⑤‘문자’의 열악한 생활공간은 문자가 빠진 사랑과 대비되어 오히려 문자의 사랑을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31~34] 현대시.(2025년 7월 모의고사)

선정 이유: 완전 평가원스럽지는 않으나 또 생각해보면 교육청 특유의 난해한 지문과 어려운 정오판단 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

3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궁지의 날인가 보다’와 3연의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 궁지도 내가 만드는 것’에서, (나)는 3연의 ‘지었네, / 공기는 왜 사이에 흐르는가. / 지었네, / 바다는 왜 사이에 넘치는가’에서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가)는 ‘~인가 보다’라는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나)는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의 2연의 ‘비처럼 퍼부어’, (나)의 4연의 ‘흘리는 눈물’은 모두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의 ‘비’는 화자의 ‘궁지’를 구체화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을 뿐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⑤ (나)는 ‘섬’이 ‘보체’고 ‘눈물’을 흘린다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32.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의 ‘나’는 2연에서 자신의 ‘최종점은 궁지’라며 이를 ‘파도처럼 요동하여 / 소리가 없고 / 비처럼 퍼부어 / 쫓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소리가 없고’ ‘쫓지 않는 것’은 ‘나’가 지향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소리가 없고’ ‘쫓지 않는’ 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함을 인식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1연에서 ‘나’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피로하였’으며, ‘또’ ‘영원히 피로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나’가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는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1연에서 ‘나’는 ‘나의 궁지’가 ‘설움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음’을 인식하며 ‘오늘’이 마침내 ‘궁지의 날’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궁지’를 ‘설움과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인식하며 ‘오늘’이 ‘궁지의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2연에서 ‘나’는 피로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환상’은 ‘변개’와 같이 찰나의 시간만을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자신을 나아가게 하는 ‘원천’은 ‘궁지’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변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자신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3연에서 ‘나’는 ‘피로’와 ‘궁지’ 모두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로’와 ‘궁지’가 모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가)의 ‘꽃’은 ‘피로’와 ‘궁지’를 만들 때마다 ‘한 치를 더 자라는’ ‘나의 몸’을 빚던 대상이다. 따라서 ‘꽃’은 성장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하늘’은 ‘불’과 ‘제’에 의해 ‘깨메’지는 대상이다. 이는 ‘하늘’이 ‘불’과 ‘제’에 의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하늘’은 화합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성품에 대해 칭찬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성장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므로, ‘꽃’이 화자의 조급함을 해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나)의 ‘하늘’은 ‘불’과 ‘제’에 의해 하나가 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하늘’이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하늘’이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꽃’은 ‘나의 몸’이 ‘자라는’ 것을 빚내고 있을 뿐,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나)의 두 섬은 ‘이룰 수 없는가’를 말하고, 이후 ‘흘리는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며’ ‘불과 제가 만’났다. 이를 통해 두 섬이 연결되게 한 공통점은 두 섬이 ‘흘리는 눈물’임을 알 수 있다. ‘불’과 ‘제’가 만나서 ‘빛나는’ 것은, 이미 두 섬이 연결된 이후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나)의 ‘불’과 ‘제’가 ‘빛나는’ 것은, 대립적인 면을 지닌 두 섬을 연결되게 만든 공통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가)의 3연에서 ‘모든 설움이 합쳐지’는 것이 ‘궁지의 날’이라는 것은 설움이 궁지의 전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움은 궁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가)의 ‘모든 설움이 합쳐지’는 것이 ‘궁지의 날’이라는 것은 설움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3연에서 ‘궁지의 날’이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은, 궁지의 마음 상태로 다다른 화자가 다시 설움의 마음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궁지의 날’이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은 상반된 마음 상태인 궁지와 설움이 순환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2연을 보면, 두 섬은 서로 ‘보이지 않는’ 고립된 상황으로 인해 ‘꿈이라는 짐을’ 짓는다. 따라서 (나)의 두 섬이 ‘꿈이라는 짐을 지’은 것은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4연에서 ‘한 섬이 ~ 눈물에게로 가네.’ 이후 ‘불’과 ‘제’는 ‘만나서’ ‘하늘을 깨메’고 있다. 따라서 (나)의 한 섬의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는 것은 두 섬이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